

### 대강절 세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3<sup>RD</sup> SUNDAY OF ADVENT

주후 2022년 12월 1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17 장 “만백성 기뻐하여라” (통일 117)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17 번 구주 강림 (3)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이사야 (Isaiah) 35:1-10</b>	김숙희 집사
찬 양 Anthem	“Advent Trilogy”	찬양디
설 교 Sermon	<b>“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The Ransomed of the LORD Will Return)</b>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620 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지만,

우리는 쉽게 기쁨과 감사를 빼앗겼고,

염려와 근심에 휩싸였으며,

자주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죄악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상실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오니,

다시금 주님으로 인한 참된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경험하며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전 5:16-18)

####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개역개정 사35:10)

“The ransomed of the LORD will return. They will enter Zion with singing; everlasting joy will crown their heads. Gladness and joy will overtake them, and sorrow and sighing will flee away” (NIV **Isaiah 35:10**)

####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2/11 (주일)	12/12 (월)	12/13 (화)	12/14 (수)	12/15 (목)	12/16 (금)	12/17 (토)
	대하11,12	대하13	대하14,15	대하16	대하17	대하18	대하19,20
본문	계2	계3	계4	계5	계6	계7	계8
	습3	학1	학2	숙1	숙2	숙3	숙4
	요1	요2	요3	요4	요5	요6	요7

#### 수/요/ 찬/양/집/회

수요 찬양집회 (12/14수 오후7:30)

토요 새벽기도회(12/17토 오전6:30)

#### 토/요/ 새/벽/기/도/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요일5:1-12)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시105:1-22)

#### 지난 주일(12/4) 말씀 – 대강절 두번째 주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이사야 11:1-10)

오늘 본문인 이사야 11장(사11:1-10)은 (매우) 소망이 되는 메시지로 채워져 있지만, 실제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암울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나무가 도끼에 다 찍혀서, (이제는) 불품 없는 밀등만 남겨진 그런 형국이라고 하겠습니까(참고사10:33-34). 그런데, 나무가 베어나가고 줄기도 다 꺾여져서, 이제 불품 없는 밀등만 남았는데, 그곳에 다시 싹이 나고, 그곳에 다시 가지가 나서, 결국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사11:9하)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바다 덮음 같이”는 (과연)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물’과 ‘바다’가 의미하는 바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 그리고 정결함을 상징하지만, ‘바다’는 혼돈, 무질서, 두려움 등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과 정결함을 상징하는 물(참고, 겔47장-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혼돈과 무질서와 두려움 등 하나님 없는 세상을 다시금 뒤덮게 될 때, 그리고 여호와와의 영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계21:5)가 회복되며, 우리는 (더 이상) 죄된 본성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변화된 성품)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평화... 더 이상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설/교/ 메/모